

“환경기술인의 존재가치를 보여줄 때”



▲ (주)한솔홈데코 익산공장 전경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한 제17회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시상식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금강대장에는 (주)한솔홈데코 익산공장 한진희 환경관리과장이 차지했다. 다음은 한 과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다.

-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제17회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시상식에서 영예의 금강대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우선 수상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전국의 환경기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경기술인을 대신하여 제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환경관리에 애쓰고 있는 많은 환경기술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전국의 모든 환경기술인 여러분께 돌리고 싶습니다.

- 현재 (주)한솔홈데코 익산공장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회사소개를 하신다면.

국내 최대의 마루바닥재, 중밀도 섬유판 생산업체인 (주)한솔홈데코는 지난 1991년 12월 전주제지(현 한솔

제지)의 산림본부에서 전주임산으로 분사한 후, 초기에는 한솔제지에 원목을 공급해 주고 조립사업을 관리하다가 이후 1993년 동인보드를 인수하면서 목재가공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이루었습니다.

1995년 단일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연산 25만㎡)인 익산공장을 준공하면서 PB(Particle board), MDF(중밀도 섬유판)등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여 목재 가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국내 최대규모의 참마루 바닥재와 주거용, 주방용 그리고 인테리어용 가구소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매출 2,344억원, 경상이익 17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행복한 공간을 창조하는 환경친화기업”으로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보드 사업을 축으로 참마루 사업과 인테리어사업, 제재목사업 그리고 해외조

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주)한솔홈데코 익산공장의 환경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솔홈데코 익산공장은 대기 1종, 수질 3종 사업장이며 익산제2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대기부문에서는 현재 전기집진기 2기, Scrubber 2기와 공정용 Bag Filter 17기가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B-C유는 황 함유량 0.3% 이하인 저유황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청정연료인 LNG대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야는 회사에서 1차 처리후 방류하면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여 최종처리후 방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분야에는 종류별로 분리수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폐목소각보일러에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를 일 200톤씩 소각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금강대장을 수상하게 된 근본 동기가 회사내 환경 개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 사례를 열거해 주신다면.

공장 설립이래 환경분야별로 많은 개선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폐목 소각보일러 신설에 의한 환경개선사례 입니다.

기 설치운영중인 100톤/일 스토커 소각보일러는 2005년도 강화되는 대기환경법규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최신설비인 유동층 소각보일러 200톤/일을 신설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를 소각함으로써 B-C유 사용량을 연간 24억원 감소시키기 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목재 소각보일러는 폐목을 직접 투입하는 스토커 소각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폐목재를 1차 분쇄후에 투입하는 유동층소각로를 신설하여 완전연소시킴으로써 2005년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VOC 감소를 위해 청정생산공정을 도입하여 수지 사용량을 30% 절감하기 위한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오염물질을 사후처리방식이 아닌 청정공정을 도입하여 현재보다 미세하게 수지를 분사함으로써 수지사용량을 절감하는 공정입니다.

● (주)한솔홈데코 익산공장의 환경개선 의지와 연간 환경캠페인을 소개한다면.

익산공장은 2004년도 7월에 ISO 14001을 인증 받았으며 12월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3개년간 환경오염물질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환경부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평가를 받



▲ 익산산업단지 환경협의회 환경캠페인 기념촬영

을 예정입니다. 법 규제를 떠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 오염물질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체기준치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부문의 환경활동을 소개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친환경적마인드를 갖게하여 생산활동 전체에 대한 친환경적인 업무는 물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일반 및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사내환경교육 및 외부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익산시 상수원인 신흥천에 대하여 매월 하천정화활동과 산가꾸기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과 연대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근학교는 물론 주민, 각기관 및 단체에 생산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을 개방하여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교육을 통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에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년중 지원함으로써 전문지식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환경지킴이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산업단지내에 환경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익

산산단 환경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기업 스스로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 계몽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차원의 환경회의를 년 4회 계열사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환경감사를 통하여 국제기준의 환경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현행 환경정책과 현장의 실제 상황과는 괴리감을 느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의 실무자로서 느낀 점을 몇가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아직도 관리하기 편한점 오염원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점오염원을 빨리 안정화시키고 이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환경관리에 기본적으로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산업단지 지역의 지도점검 횟수가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환경기술인들은 점검횟수가 더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시면서 평소 환경관을 피력한다면,**

환경관리는 의식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몸소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법규의 강화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투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화되는 환경법규를 잘 이용하여 기업에 오히려 이익을 줄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기술인부터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기술인이 먼저 정확히 알고 이해를 시키고 효과적인 투자를 이끌어 낸다면 오히려 환경법규 강화가 기업에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 익산시 상수원 신흥천 하천정화활동 모습